

데스크사자



윤현식 정치부 부국장

중국 고전을 좋아하는 후배가 있다. 그가 한 번씩 보내주는 글귀는 매년 정치적·사회적 이슈와 연관돼 있는데, 이번에 보내준 것은 사기열전 제1편 '백이열전'에 있는 내용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서재에서 1975년 10월 동서출판사가 발간한 최인욱·김형수 번역 사기열전을 발견하고는 줄곧 손에서 안 놓고 열심히 읽었던 터라 그 문장 그대로가 기억이 났다.

“이러바 하늘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사마천은 수양산에서 굶어죽은 백이·숙제, 공자가 가장 아끼는 제자이지만 자루 끼니를 잊지 못해 굶어서 죽은 안희와 포악 방종하게 살다가 도당을 모아 천하를 횡행하였지만 목숨을 온전히 누리고 산 도적을 비교하면서 “이러한 일은 나를 아주 당혹케 한다”고 토로했다. 권선징악과 인과응보가 과연 있는 것인지 최고의 역사가조차 알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늘의 도리는 과연 옳은 것인가

전두환과 그를 따르는 군내 사조직 하나회의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20·3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광범위하게 인기를 얻으며 누적 관객 1000만 명을 넘어설 기세다. 영화는 권력에 눈이 먼 소수의 군인들이 온갖 모략을 써 저지에 나선 일부 군인

정치, 그 무거운 책임

들을 잔인하게 진압하며 '성공한 쿠데타'를 만들어낸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특히 1979년 말 권력 공백기에 일어난 쿠데타에 당황한 군 고위급과 고위 공직자들이 우왕좌왕하며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결정하지 못한 순간들이 관객들을 몰입하게 했다. 몇몇 관객들은 '본노 게이저'가 올라가 영화 중간에 뛰쳐나가기도 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은 고대 그리스였다. 기원전 2000년대부터 시작해 기원전 31년 로마에 합병되기까지 기나긴 시간동안 고대 그리스는 아테네, 스파르타로 대표되는 최대 1000여개의 도시국가들로 구성돼 있었다. 이들 도시들은 때로는 연합해 외적을 무찌르고, 한편으로는 서로 경쟁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했다. 고대 그리스가 인류에게 남긴 유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다양한 정치 제도의 창안과 적용이었다. 왕정, 귀족정, 참주정, 민주정 등 거의 모든 정치 체도를 운영했고 노예제도, 여성 차별 등 여러 한계는 있었지만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전형을 후세에 알려줬다.

세습과 통혼을 통해 권좌에 앉았던 왕, 봉건영주들과 달리 주권자의 투표를 통해 자리를 얻은 선출직 정치인은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데 있어 몇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특정 계층·세력·지역의 기득권을 타파해 국민 대다수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 사회 내부의 혁신을 이끌어 무사안일과 권위주의를 타파해야하며, 눈앞의 이익보다는 미래 국가·지역공동체를 지속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무력을 가진 군대와 함께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감시·견제해 그들이 사사로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 역시 갖고 있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하면서 다양한 지식 함양, 주권자의 의견 수렴, 전문가·시민단체 등과 교류 등 정치인이라면 해야 할 일은 끝도 없다. 하지만 안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정치인 중 상당수가 자신의 책무는 있고 노력과 반성도 없이 특정 세력의 지지에 기대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외면하거나 협상과 중재를 통해 모두를 위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상대방을 적대하는데만 열을 올려 '정치 실종'을 초래하고 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 등장한 여배우의 대사처럼 '세상은 안 바뀌고 이름만 바뀌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

세상은 안 바뀌고 이름만 바뀌는

현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에 의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걸었던 기대는 너무도 컸다. 무엇보다 여당이 국회 과반을 훌쩍 넘는 180석을 차지해 여러 분야에서 혁신이 가능했던 절호의 기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약속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국가 균형발전, 부동산 안정, 세계 개혁 등 거의 모든 현안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운영에 관여했던 정치인들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처절한 자기 반성과 철저한 원인 분석, 실패의 반목을 막을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었다.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정치인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늘의 도리까지 알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정치인의 도리를 알고 실천하려는 노력이라도 했으면 한다. 다음 총선에서는 그런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은펜칼럼



이병우 우이포인트연구소 대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맥주 애호가로 유명했다.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했다.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서 백악관 뜰에서 맥주 미팅(Beer Summit)을 했고 각국을 순방했을 때도 정상들과 맥주를 마시며 만남을 가졌다. 이를 맥주 외교라고 부르기도 했다. 심지어는 백악관에 맥주 양조장까지 만들어서 '화이트 하우스'라는 브랜드로 맥주를 생산하고 레시피를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선호도 조사 방법 중에는 '맥주 테스트'라는 것이 있다. "어떤 후보와 같이 맥주를 마시고 싶나요?"라는 설문 조사이다. 이 조사 결과가 여론 조사보다 신뢰성 있게 나타난 경우가 2016년 대선이다. 트럼프는 힐러리에 비해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격차로 뒤처졌지만 맥주 테스트에서는 앞섰었다. 결과

대통령과 술

는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승리했다. 같이 맥주를 마시고 싶은 상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호감 이미지 형성에 술을 적절하게 활용한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 5·16 군사 쿠데타 후 최고회의의장 시절, 권위주의적이고 딱딱한 이미지를 어떻게 부드럽고 서민적이게 바꾸느냐가 과제였다. 이때 시도한 것이 모내기철에 농부와 막걸리를 마시는 장면을 연출하고 이를 PR하는 것이었다. 효과는 대단해서 이미지 PR의 성공 사례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그 후에도 막걸리는 박대통령의 서민 이미지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 비록 10·26 궁중동 술판에 등장한 술은 시바스 리 같이었지만 말이다.

이후 역대 대통령은 술을 이미지 형성에 적절하게 활용했다. 술자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면모와 리더십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대해 막걸리를 곁들인 만찬을 열기도 했고 퇴근길 호프집에서 시민들과 수제맥주를 마시는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렇게 대통령이 술을 마시며 격의 없는 대화를 하는 모습은 일반인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준다.

반면에 다른 경우도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파리를 방문했을 때 재벌 총수들과

비공식 술자리를 가졌다고 해서 구설수에 올랐다. 고생한 재벌 총수들을 위로하는 자리라고 하는데도 말이다. 사실 다른 대통령과 달리 윤대통령의 술자리는 평판이 좋지 않다. 외국 방문길에 동행한 재벌 총수를 불러 저녁 시간에 '소폭 줌 했기'로 그제 그리 목욕을 일 일까?

며칠 전 부산 강동시장의 떡볶이 먹방 사진에서 여러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재벌 총수들 부산으로 불러들여서 대통령의 떡볶이 먹방 행사에 병풍으로 세워놓다니, 이런 일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 행위라고 생각한 것일까? 미국 대통령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의 대표들을 병풍으로 세워놓고 핫도그를 먹는 장면을 연출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오랫동안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

연장선에서 지난 4월 부산 횡집 옆에 도열해 있던 정관계 인사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수직적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 조직에서 술 모임은 권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 상사는 자신의 권위를 공고히 하고, 부하 직원은 상사의 의중을 파악하고 애쓴다. 이 글의 결론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맥주 양조장을 만들어 술을 마셔도 지지를 받았는데 한국의 윤대통령은 그것 회식 줌 했다고 비난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고



최정훈 전라남도의회 의원

전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7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다. 전남지역의 선거구안을 보면 전남의 특성과 현안에 대한 이해나 고려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도 역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 25조)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경우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며, 인구 범위(인구비례 2대 1)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매우 중요하다.

제출된 전남의 선거구획정안을 보면 서부권인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를 공중 분해하여 각각 인근 선거구에 합쳐서 1석을 줄이고, 동부권인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선거구를 순천읍과 광양·곡성·구례로 분구하여

전남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재검토해야

1석을 늘리는 것이다.

그 결과, 서부권 9개 시·군(2개 시, 7개 군)은 인구 72만 명에 3석, 중부권(순천 없음) 8개 군은 인구 34만 명에 2석, 동부권 5개 시·군(3개 시, 2개 군)은 인구 76만 명에 5석이 된다. 권역별 선거구당 평균 인구를 보면 서부권은 24만 명, 동부권은 15만 명으로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거의 9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나주·화순·무안과 목포·신안 선거구의 경우 인구가 각각 26만 9415명, 25만 4447명으로 1석 씩임에 반해 여수와 순천 선거구는 각각 27만 4495명, 27만 8712명이지만 2석 씩이라는 점이다. 여수는 선거구당 13만 7248명이었고 나주·화순·무안 선거구는 26만 9415명으로 그 차이가 무려 13만 2168명이다. 기준인구의 하한선(13만 5521명)과 분구선(27만 1042명)에 반하지는 않지만, 지역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 등 법의 합목적성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획정안이다.

여수와 순천이 전남지역에서 타 20개 시·군에 비해 매우 심하게 과잉 대표가 되고 있으며,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을 강조한 법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번 선거구안이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서부권 농산어촌 지역에서 1석을 줄이고, 동부권 도시지역에 1석을 늘렸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정치적 셈법이 적용했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동부권과 중서부권의 경제적 차이는 지역내총생산

(GRDP)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권역별 인구 비율을 적용해 비교하면 동부권이 중서부권보다 약 1.7배 높고, 특히 제조업부문은 무려 4.5배나 높게 나타난다. 동부권이 농업·임업·어업과 공공행정 부문을 제외하고 전 부문에서 압도하고 있으며 그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 7월 순천에 전남도청 동부청사를 새롭게 건립하여 기존의 동부지역본부부를 대폭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공공행정부문도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 중심이 동부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속적인 동부권 쏠림현상으로 타 지역의 패배감과 상실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렇듯 전남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균형을 잡고 있던 정치부문에서도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가중시키면서까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대폭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농도(農道) 전남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동부권에 모든 패권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수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불합리하고 편향된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된다면 이는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전남 동부권과 중서부권 간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하여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남 내에서 지역간 갈등과 반목을 커져만 갈 것이다. 이번 전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철회하고 재검토해야 할 이유다.

社說

혁신 없는 민주당, 이대론 총선 장담 못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인적 쇄신 등 혁신 경쟁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밀쳐잡지 앞서 가고 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친윤 희생 요구가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 퇴진으로 이어지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 활동 종료 당시만 하더라도 '빈손'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얼마후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데 이어 김기현 당 대표까지 사퇴하자 혁신위가 인적 쇄신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서도 한 발 앞서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판설을 놓고 당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지만 치열한 논쟁을 통해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에게 긍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통합 행보에도 신당 논란과 당내 갈등으로 내용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 속에 변화를 모색한

고 있지만 민주당은 하는 일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느슨한 인상은 민주당 지도부의 반응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혁신의 시간은 빠르면 1월 중순에서 2월 초순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주당 시간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출범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인적 쇄신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너무 안이하게 비쳐지는 것은 왜일까. 핵심 중진들이 용퇴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이태하·홍성국·오영환 등 초선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도 혁신이 없는 민주당에 보내는 위협 신호다.

민주당의 자금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라는 전략처럼 보인다. 혁신 경쟁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기대 총선을 치르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을 정도다. 내년 총선이 정권 심판이라지만 민주당의 혁신 없이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광주관광공사 출범 '꿀잼 도시' 도약 계기로

그제(18일) 광주광역시관광공사(이하 광주관광공사)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2005년 문을 연 김대중컨벤션센터와 2020년 발족한 광주관광재단을 통합해 광주관광공사로 거듭났다. 새롭게 출범한 광주관광공사는 광주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는다.

공사는 출범식에서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익사이팅 광주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며, 경영 비전으로 '광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 마이스 통합 플랫폼'을 제시했다. 또한 '꿀잼 도시' 광주를 구현하기 위한 3대 경영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공사는 앞으로 어등산 관광단지과 '영산강 100리길 Y 프로젝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과 함께 2026년 광주도시 이용 인구 3000만 명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역사

자원을 비롯해 무등산·광주호와 같은 자연유산, '예향(藝鄕)'으로 불릴 만큼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 재미있는 남도 먹거리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품고 있다. 그렇지만 5·18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이 강조되면서 외국인들에게 여행지로서 다소 부담스러운 인상을 준 측면이 있다. 역사성에 자연유산과 문화예술 자원, 먹거리 등이 부각되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광주를 찾는 MZ 세대들은 양림동과 동명동 등지에서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공간을 찾아내 만족하고 있다. 아직은 '꿀잼 도시'로 지칭할 만큼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광주시민들이 광주관광공사에 가는 기대는 크다. 광주관광 발전을 선도하는 콘텐츠를 다뤄 역할과 함께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익사이팅 광주'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공사는 앞으로 발상의 전환과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광주 관광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

無等鼓

광주는 민주화의 도시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1980-90년대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를 이끌어온 도시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가족들의 아픔이 뒤따랐다. 그래서인지 도시가 엔지 암울했고, 경제적으로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 상당히 뒤쳐졌다. 그럼에도 광주는 국제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이 진행되고 있거나, 의료환경 등이 열악한 국가와 도시에 나눔과 연대의 손길을 내밀면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는 광주 이미지는 외지인들에게 무거운 인상을 주 '노잼 도시'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 광주가 이제 재미와 활력이 넘쳐나는 '익사이팅 도시'로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민선 8기 광주시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광주는 민주화의 도시이기 이전에 예향·문화의 도시로 손꼽혔다. 이때문인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고, 비엔날레와 총장 축제, 김치축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K-POP&K-컬처축제 등 각종 문화예술 축제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외지 관광객

을 끌어들이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없다는 점이 수 없이 지적되어 왔다.

광주시가 대대적인 '축제 리모델링'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기존 유사 축제를 통합하고 축제·행사·박람회 연간 일정을 켈린더화하는 방식으로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관광 콘텐츠 강화와 새로운 관광지 발굴, 관광 인프라 확충 등도 역점 사업으로 꼽고 있다.

최근 추진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영산강 100리길 Y 프로젝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복합쇼핑몰 유치 등은 광주 관광의 기틀을 새롭게 전할 잠재력은 호재다.

기에 '익사이팅 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전초기인 광주관광공사가 본격 출범했다. 이처럼 대규모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고, 축제 콘텐츠들이 다양해진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광주를 찾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거창한 구호와 계획보다는 이를 실천시켜 나갈 광중에 적합한 양질의 콘텐츠와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광주가 진정한 '익사이팅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최권일 정치총괄본부장 cki@

Table with 4 columns: 회장·발행인 (회장 김수현), 논설실장 (장제원), 편집총괄국장 (최영호), and other staff.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like phone and fax numbers.